2023.2.7.

"2023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인문사회연구본부 본부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전우현입니다.

올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에 관심을 가지고 왕림해주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고영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그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총괄하던 학술진흥과가 「학술연구정책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저 또한 1월 1일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와 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가 더욱 협력하여 인문사회분야 연구현장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자분들이 연구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기본적인 사업 내용과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다만 비대면 설명회가 2020년부터 3년째 계속되고 있어 하루 속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직접 연구자분들과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는 여러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조정과 신규 1년차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연구기간 편성입니다.

올해부터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신규과제 개시일을 6월 1일과 9월 1일로 통일하면서 대학 회계연도를 고려해 6월 1일 개시과제 1년차는 9개월로, 9월 1일 1년차는 6개월로 조정하여 2024년에는 1년차가 모두 2월말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연구 사업에 있어서는 과제 수 확대, 단가상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과제 수가 확대되고 B유형의 단가가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또,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2,000만원씩 총 300개 과제입니다.

집단연구에서는 융복합연구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이었던 「인문사회 연구소지원사업 중 미래공유형」 유형의 신규과제 확보를 통해 미래공유형 연구소를 추가 발굴할 것입니다.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지원규모를 경량화하여 사회 및 학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젠다 중심 3년 단기 연구집단형 연구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할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윤리와 관련, 부실학술지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들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명회가 연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7일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전 우 현 드림